

숨씨 좋은 남자, 취미 들여다보기

비 타마인드 멀티미디어팀에서 웹 기반의 광고나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는 멀티미디어 요소를 디자인하는 모션그래픽디자이너 이윤성(27) 주임. 그의 취미는 지금 하는 일과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만의 표현법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드는 점과 그 작업물을 단번에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 그렇다. 숨씨 좋은 남자 이윤성 주임이 지금까지 만든 역작은 건담로봇, 핀홀카메라, BMX 자전거 등이다. 편리만을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까다로운 취미를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하기만 하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면 관심이 금방 시들잖아요. 좋아하는 분야의 제품을 직접 만들면 애정도 오래가고,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에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별난 행동으로 여겨질지 몰라도 이주임에게만은 하나의 놀이이며, 산의 정상에 깃발을 꽂듯 꼭 달성해내고야 마는 각별한 취미다. 지금까지 그가 만든 작품 중 단연 으뜸은 최고의 애니메이션이며, 시리즈별로 정성을 기울여 완성한 건담로봇! 로봇을 조립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명서만 보고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는 설명서를 보지 않고도 조립을 한다. 어릴 적 우상이었던 건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로봇의 크기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다르지만 보통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완성한다. 비슷하게 생긴 작은 부품이 많아서 조금 힘들긴 해도, 자신을 수호해 주는 건담

로봇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느끼는 재미와 감동은 상상 이상이다. 초등학교 미술시간에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던 기억을 응용해 제작한 또 하나의 작품, 핀홀카메라도 대표작으로 꼽힌다.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고난이도에 도전했는데, 구입할 부품이 많기도 하고 실제로 사진 찍는 능력을 갖춰야 해서 생각보다 어려웠단다. 완성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며 당시의 진땀 흘린 기억을 쏟아낸다. 조립을 위한 도구가 스무 가지가 넘게 필요한 프라모델은 기금씩 하는 편. 또 일반 자전거보다 몸집이 작아 귀여운 BMX 자전거는 지금 그의 훌륭한 교통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여자친구 생일엔 그녀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에 일일이 글을 써 넣은 아트북을 만들어 선물했다는 그는, 꽤 감성적인 남자이기도 하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꼭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의 집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건축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숨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열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이윤성 주임. 이후 최대 걸작이 될 집짓기에 성공하기 위해선 지금껏 만들기를 하느라 쏟은 땀의 몇 배를 더 흘려야 할 테지만, 그는 “Impossible is nothing!”이라며 활짝 웃는다.

